



두 번째 이야기

내가 눈에 띄는 특별한 이유

하나님의 자녀는 반짝반짝 빛나서 눈에 땀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함께 알아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뒷막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라.

마태복음 5:13-16



눈에 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이 세상에서 눈에 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예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부탁하셨지요.

소금은 짠맛을 낼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썩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미움이 가득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13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 속에서 등불의 밝은 빛이 주위를 밝혀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세요.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이 되어 사는 모습일까요?

우리의 빛의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빛을 밝게 비추고 있나요, 아니면 빛을 감추고 있나요?



이제 밝게 빛나는 빛이 되세요. 예수님을 몰라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밝
은 빛이 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14

멀어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
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
에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
리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5:16

숨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겨지지 않는 환한 빛처럼, 멀리서도 보이는 산꼭대기 위에 있는 집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마태복음 5:16

글씨가 쓰여진 깃발을 색칠하면서 따라가면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깃발에 적힌 글씨를 하나씩 써보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 □ , □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꼭 짚으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